

### 울진군, 농촌주택개량 사업 추진... 신축 2억·증개축 1억 용자

**【울진】** 울진군은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 농·어촌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해 2019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불량 주택 개량, 무주택, 도시지역에서 농·어촌

으로 이주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택 신축의 경우 최대 2억원, 증·개축 등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용자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고, 대출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150㎡ 이하(부속건축물 포함)일 경우에만 용자 지원이 가능하며,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일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5년간)가 면제되고, 농촌주택개량 대상자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도 30%감면 된다.  
/주현석기자 hsjoo@kbmaeil.com

## 설 앞두고 곳곳 나눔 확산...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



### 울진군의회, 군부대 등 10곳 방문·물품 전달

울진군의회는 지난달 30일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지역 내 군·경 및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했다. 이번 설맞이 위문에는 울진군의회 장시원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모두가 참여해 지역 내 노인요양원(울진읍, 매화면, 평해읍) 및 영신해밀홈, 인덕사랑마을 비롯한 군부대·경찰서·소방서 등 총 10곳에 라면, 성인기저귀, 롤휴지 등 기관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방문에는 시설수급 현황과 운영실태 등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향후 의정에 반영할 계획이며, 시설 종사자들에게 내 가족 같은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성심껏 보살펴 줄 것을 당부했다. 울진군의회 장시원 의장은 “이번 위문을 통해 명절에도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고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과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군민 모두가 따뜻한 정을 나누는 즐거운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울진/장부중 기자 bu-joong@hanmail.net

## 울진군의회, 복지시설 등 위문품 전달

울진군의회는 지난달 30일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관내 군·경 및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했다. 이번 설맞이 위문에는 울진군의회 장시원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모두가 참여해 관내 노인요양원(울진읍, 매화면, 평해읍) 및 영신해밀홈, 인덕사랑마을 비롯한 군부대·경찰서·소방서 등 총 10곳에 라

면, 성인기저귀, 롤휴지 등 기관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방문에서는 시설수급 현황과 운영실태 등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향후 의정에 반영할 계획이며, 시설 종사자들에게 내 가족 같은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성심껏 보살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영철 기자jcl154@kbyn.co.kr

## 경주 수렴항 등 경북 3곳 ‘어촌뉴딜사업’ 착수

### 울진군의회, 사회복지시설 방문

울진군의회는 지난달 30일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및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지역 내 군경 및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했다.

이번 설맞이 위문에는 울진군의회 장시원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모두가 참여해 지역 내 노인요양원(울진읍, 매화면, 평해읍) 및 영신해밀홈, 인덕사랑마을 비롯한 군부대·경찰서·소방서 총 10곳에 라면, 성인기저귀, 톨휴지 등 물품을 전달했다.

또 사회복지시설 방문에서는 시설수급 현황과 운영실태 등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 향후 의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영환 기자 yh5775yh@naver.com



### 포항 신창2리항·울진 석호항 등 전국 최초 위·수탁계약 완료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본부장 수산부)가 지역밀착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으로 시행하는 ‘어촌뉴딜300사업’의 최종대상지로 선정된 경북지역 5지구 중 3지구(경주 수렴항·포항 신창2리항·울진 석호항)를 신규 착수지구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어촌뉴딜300사업’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게 300개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한 어촌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사업으로 해양관광, 어촌경제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어촌주민의 삶의 질 제고,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핵심 주력사업으로 올해부터 추진 중이다.

경북본부는 전국 최초 위·수탁계약을 완료했으며 △경주 수렴항(경주 양남면 수렴리 일원, 112억 원) △포항 신창2리항(

포항 장기면 신창리 일원, 129억 원) △울진 석호항(울진 북면 나곡리 일원, 96억 원) 등 3지구(337억 원)의 기본 및 세부설계를 올해 상반기내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경북본부는 단기간에 추진 가능한 사업부터 선제적으로 집행해 2020년까지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올해 70개소 선정에 이어 2020년 100개소, 2021년 130개소, 2022년까지 전국 300개소에 총 3조135억 원을 투입, 어촌지역의 혁신성장 및 해양관광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강경학 본부장은 “앞으로도 어촌·어항 재생 지역협의체 및 어촌뉴딜300 자문단 등의 전문가를 활용해 낙후된 어촌지역의 생활 인프라 개선 및 자립적 지역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명품어항 개발 및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 ‘어촌뉴딜 300사업’ 경북지역 3곳 신규 착수

### 경주 수렴항·포항 신창2리항 울진 석호항 등에 337억 투입 전국 최초 위·수탁계약 완료 생활 인프라 개선·관광 활성화 등 2020년까지 공사 완료키로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본부장 강경학)는 ‘어촌뉴딜300사업’의 최종대상지로 선정된 경북지역 5지구 중 3지구를 신규 착수지구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규착수 지구는 경주 수렴항, 포항 신창2리항, 울진 석호항 등이다.

어촌뉴딜300사업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게 300곳의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한 어촌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해양수산부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핵심 주력사업이다.

주요내용은 △해양관광 △어촌경제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어촌주민의 삶의 질 제고 △국가 균형발전 실현 등이다.

이를 위해 경북본부는 전국 최초 위·수탁계약을 완료했으며, 경주 수렴항 112억 원, 포항 신창2리항 129억 원, 울진 석호항 96억 원 등 3지구 총 337억 원을 투입해 기본 및 세부설계를 올해 상반기 내 조기 완료하고, 오는 2020년까지 공사를 완료한다

는 계획이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올해 70곳 선정에 이어 2020년 100곳, 2021년 130곳 등 오는 2022년까지 전국 300곳에 모두 3조135억 원을 투입해 어촌지역의 혁신성장 및 해양관광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강경학 본부장은 “어촌·어항재생 지역협의체 및 어촌뉴딜300 자문단 등의 전문가를 활용해 낙후된 어촌지역의 생활 인프라 개선 및 자립적 지역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명품어항 개발 및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